

# 외국인도 종량제 봉투 사용 편해진다

### 전주시, 소각용 봉투에 외국어 표기 도입 시민 편의 확대 속도감 높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해 재사용 봉투 취급업소 확대 행정력 집중

외국인들도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가 표기된다. 시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공급과 이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어로만 표기돼 있던 종량제 봉투의 종류와 배출 방법 등을 외국어로도 병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슈퍼마켓 등에서 물건을 담은 용도로 구입해 사용한 뒤 생활폐기물류를 담아 배출할 수 있는 봉투다. 전주시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7년 6561명, 2018년 7289명, 2019년 796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적의 경우 중국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순이다.

이에 따라 중국어 또는 베트남어가 높은 영어 중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표기언어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대형마트 등 매장의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 이후 재사용 봉투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그 만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 6월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소각용 종량제 봉투의 색상을 흰색으로 통일했다. 또 집입 주민의 봉투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선시 시 복지환경국장은 "앞으로 청소행정은 시민 불편 해소와 자원순환에 초점을 맞추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사용 종량제 봉투 공급과 이용이 조기에 정착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자영업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호철 기자

### 군산해경, 도계 위반 멸치잡이 어선 4척 적발

도계(道界)를 위반해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7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6일 군산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하던 어선 4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5분께 군산시 옥도면 개어도 남서쪽 11km 해상에서 전남 여수 선적 연안선망 어선 C호(9.7t, 본선)와 D호(9.7t, 부속선)를, 오후 6시10분께 군산시 비응항 서쪽 10km 해상에서 조업한 전남 완도 선적 연안선망 어선 A호(7.93t, 본선)와 B호(7.93t, 부속선)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붙잡았다. 이들은 연안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은 어업허가를 받은 해당 지자체가 속한 연안 해역에서만 조업하도록 규정한 관련법을 어긴 것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크게 자라난 수세미 바라보는 어린이들 24절기 중 여름이 지나 가을에 접어드는 시기를 알리는 입추(立秋) 하루 앞둔 7일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우리밀영농조합에서 전주용덕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여주와 조롱박, 수세미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 미세먼지 저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 전주시, 올 상반기보다 6배 늘어난 3373대

전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를 확대한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3373대를 조기 폐차하는 등 초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는 노후경유차·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사업에 54억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부착사업(730대) 42억원, 1톤LPG화물차 보급사업

(66대) 2억6000만원 등 총 99억3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는 올해 상반기 투입예산 20여억원 대비 5배가 증가했으며 노후 경유자동차 폐차 규모는 상반기 589대 보다 6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노후경유차·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와 35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지원금액은 차량등록 제원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기준가

액표에 따라 결정되며,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차량의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165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 중 최근 2년 이상 연속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이다. 단, 정부의 지원(일부지원 포함)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성능검사 결과 '정상기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도로 위에 쌓인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북지역 최초로 '도로먼지 폭풍흡입차' 2대를 운행 중이다. 이 차량은 △차량 교통량과 인도 보행자가 많은 6차선 이상 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대형화물차량 통행이 많아 대기환경이 열악한 팔복동 공업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대당 매일 50여km 구간에 대한 도로먼지 흡입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방범용CCTV를 활용한 배출가스5등급 자동차 단속시스템 구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관협력과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송호철 기자

# 주차장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업데이트'

### 전주시설공단, 유료 19곳 대상 이달 중순 마무리 후 시범운영

다음 달부터 '8자리 자동차번호판'이 보급될 예정인 가운데 전주시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전주시설공단이 준비에 나섰다. 공단은 19개 유료 주차장을 대상으로 8자리 자동차번호판 인식을 위한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의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공단은 8월 중순까지 시스템 업데이트를 마치고 샘플 번호판을 활용한 시범운행을 거침으로써 차량번호 미인식에 따른 이용객 불편 등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전성환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철두철미한 사전 준비로 국가정책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고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8자리 자동차번호판 체계를 운영한다. 현행 7자리 번호체계 상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된 데 따른 조치다. 신규 번호판은 기존 흰색 번호판에 앞 숫자만 추가된 형태 '페인트식'과 앞 숫자와 국가상징·축약부호·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등이 추가된 '필름식' 등 2가지 방식으로 제작된다. 필름식 번호판은 2020년 7월로 시행이 연기됐다. /송호철 기자

# '미성년 동성 제자 추행'... 경찰, 중학교 前 야구부 코치 구속영장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도내 모 중학교 전직 야구부 코치의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나오면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야구부 선수 일부가 묵는 숙소에서 혼자 잡자던 B군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중순에도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B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경찰서에 찾아가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하고 거짓말하지기 조사 등을 벌였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A씨의 진술이 '진실'로 나오면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던 중 범행 장소로 추정되는 숙소의 침구류 곳곳에서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대조를 거쳐 체액이 A씨의 것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피해 학생의 진술이 엇갈려 관련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며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을 확보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 '재관람'으로 즐기는 뮤지컬 '홍도1589'

### 전북문화관광재단, 릴레이 티켓제도 운영

수도권에서 공연 마니아들이 만들어 낸 '재관람' 문화가 전북 관광브랜드공인 뮤지컬 '홍도1589'에도 도입된다.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은 지역의 연계공연을 관람했을 시 재관람 '할인 티켓'을 주는 '재관람 릴레이 티켓' 제도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여러 번 반복해 관람하는 것을 뜻하는 '재관람' 문화는 2005년 오페라의 유령 부터 시작해 재관람률이 15%에 달했으며 이후 많은 공연들이 그 뒤를 이어가 공연기획사들로부터 새로운 마케팅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재단에 따르면, 뮤지컬 '홍도1589'도

공연기획 초기부터 재관람자를 잡기 위한 할인 정책을 준비했으며, 이로 인해 재관람자가 늘어나고 있다. 재단과 지역의 문화단체들이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재관람 릴레이 티켓'은 공연에 따라 중복으로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릴레이 티켓과 차별화했다. 현재 연계된 단체는 창작극회, 한해림아트홀, 용을 쫓는 사냥꾼, 세상소리의 전주의 소리, 지역대표 축제인 전주세계소리축제 등이며 상호 교차 관람 또는 중복 관람 시 공연에 따라 최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송호철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 전주매일 금연캠페인